

잠을 깬 사람만 책을 읽는다

김삼웅

대한매일 주필

“만약 누가 나를 책을 읽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고 화려한 궁전과 백화난만한 정원 속에 살며 수 백의 시종을 거느릴 수 있는 대왕을 시켜준다고 해도 나는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책을 읽지 않는 왕보다 오히려 많은 책을 가지고 다락방에서 사는 가난한 평민이 되기를 원한다”고 독서의 즐거움을 말한 이는 영국의 석학 매콜리(Macaulay)경이다. 책을 읽고 학문하는 즐거움보다 권력이나 재력이나 쾌락 또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공허한 이상주의자의 잠꼬대에 불과할지 모른다.

고운(孤雲) 최치원의 ‘만리심(萬里心)’이란 시가 있다.

“秋夜惟苦吟/擧世少知音/窓外三更雨/燈前萬里心

가을바람에 쓸쓸한 마음으로 읊나니/세상에 나를 알아줄 이 별로 없구나/창밖에 밤은 깊고 비는 오는데/등불 앞의 외로운 마음 만리를 달리네.”

고운 같은 분이 이런 심경을 읊었는데, 탐내는 것 없고 알아줄 이 없어 외롭게 사는 속인들이야 한편의 책을 통해 긴 밤의 시름을 달랠다면 그 아니 행복하겠는가.

고려시대의 시인 길재(吉再)는 <선비의 책읽기의 기쁨>이란 글을 남겼다.

“시냇가 초가에서 한가롭게 사니/달이 밝고 바람이 맑아 흥겹네/외객이 오지 않으니 산새와 벗하고/평상을 대숲에 옮겨 책을 읽네.”

현대인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한가한 푸념이라 탓하지 말자. 문제는 정신에 있다. 깊어가는 가을 밤 TV를 끄고 그동안 묵혀두었던 한편의 책읽기를 작심한다면 길재의 심증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사흘 독서를 하지 않으면 말씨에 아치(雅致)가 없어진다”(世說新語)는 말이 있고, “가난한 자는 책으로 인해 부자가 되고 부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준귀해진다”(古文眞寶)란 말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슬픔도 한시간의 독서로 풀리지 않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몽테스키외)는 경험도 있다.

실학자 이덕무(李德懋)는 ‘책만 읽는 멍청이’라 하여 <간서치전(看書痴傳)>을 쓰다가 두 눈이 짓물러 눈을 뜨지 못하는 중에도 손에 책을 놓지 않는 독서광이었다. 그의 심오한 실학사상도 이러한 경지에서 얻어진 것이다.

독서를 ‘단어(Word)’ 통해 ‘세상(World)’을 보고 듣는 여행이라 했던가. 독서처럼 자유롭고 풍요롭고 진귀한 여행도 없을 것이다.

최근 처세술과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각종 잡서가 판을 친다. 우수 도서는 수지가 맞지 않아 출판이 기피하는 경향도 보인다. 저질 불량도서들이 광고선전과 상업언론의 과대 소개를 통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도 흔하다. 출판시장처럼 ‘그레삼 법칙’이 심한 곳도 드물다고 한다.

소슬바람 부는 만추에 ‘많은 책을 가지고 다락방에서 사는’ 가난한 평민의 행복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으면 싶다. 그리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심지가 굳고 식견이 넓은 사람들에 의해 여론이 주도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선진사회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질의 단청(丹靑)은 오래되면 그 빛이 바래지지만 독서로 들여놓은 심성의 염색은 아무리 해가 지나도 닳지 않는다고 했다. 잠을 깬 자만이 책을 읽는다. 깊어가는 만추의 밤에 잠을 깬 사람만이 찬란한 새봄을 꿈꾸게 될 것이다. ❖

표지 인터뷰	2	조선의 강건한 정신을 길러낸 소우주 공간 《서원》 펴낸 안장현·이상해씨
초점	4	도서관이 사라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부족으로 도서관 통폐합
집중취재	6	진짜같은 복제본 버젓이 활개 불법 복제품 나돌아 출판사 피해
출판계 소식	7	기울, 출판인 수상 소식 풍성·외
출판시론	8	일본 '미디어 믹스' 본격상륙 예감 - 김지룡
인터넷 출판향해	9	미국 최대서점 '반즈앤노블' 사이트 외 - 조영희
저자 초대	10	《소쉬르》 펴낸 김방한 교수
스케치	11	'책·교·실' 주최 '98 어린이 책잔치 이모저모
출판화제	12	옛 인물에서 배우는 오늘의 세상 이치 13 이젠 '지식'이 국가흥망을 좌우한다
출판가	14	문자와 씨름하는 교정 전문가들의 안과 밖 15 디지털 문명을 거부하는 아날로그형 책들
종합 서평	16	김지원·윤대녕의 장편소설을 읽고 - 방민호
시집 서평	17	심호택 외 4인의 시집을 읽고 - 이희중
가상대담	18	'독일의 셰익스피어' 브레히트와의 대화 - 이상일
만화	19	책과 오과장 - 박시백
연재 에세이	20	눈 내리는 밤, 금서를 읽는 즐거움 - 이광주
얼굴	21	한국출판인회의 초대대장 맡은 김연호씨
이달의 출판광고	24	신세대 시선 끄는 감각적 광고업서 10 - 마정미
서평	26	민경현 《술과 물의 문화》·외 - 양병이 역사문제연구소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 정태현 27 박성래 《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 - 전상운 28 강영안 《자연과 자유 사이》 - 연효숙 그루세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 권영필 29 기어츠 《문화의 해석》 - 권숙인
이 책 그 사람	30	《인간적인 것과의 재회》 펴낸 박호성씨 《클래식 사람의 음악이다》 펴낸 최영욱씨 31 《알면 이기는 조세소송》 펴낸 윤종훈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다시 보는 사진집	48	20 권미숙 《우리시대 또 하나의 풍경》